

미리보는 2008년 한국경제의 8대 핵심 이슈

내년 한국경제는 향후 5년간의 한반도 정세 전망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이코노미스트 2008 세계 대전망'이라는 책자를 통해 내년 한국경제의 경기 회복속도를 결정짓는 핵심이슈로 8가지를 꼽았다.

① 새정부 對北정책 경제전반 큰 영향

한일 양국의 새 정부 출범과 미국 대선에 따른 주변국들의 대북정책 변화, 북한의 대응여부, 북핵문제 등을 한국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②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술투자의 낮은 효율성을 높이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현상을 막아내기 위해 역부족이라 새 정부의 새로운 경제정책이 중요하다.

④ 민간주택 성숙단계 진입

민간주택 건설은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해외건설 비중은 크게 늘어나며 기업규모별 경기격차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③ 소비자 신용 경제로 전환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신용의 상당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반면 선진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자 신용은 아직

⑤ 제조업 경쟁력 약화 우려

2004년 현재 일본·독일 등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국내 투자장제와 생산시설의 해외유출 확대, 해외 기술의존도 심화, 불안한 노사관계,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업규제 등으로 내년에는 악화될 우려가 높다.

⑥ 기업 M&A 시장 활성화

기업들이 M&A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데다 정부 보유지분 매각 예정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 풍부해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⑦ 신 골드락스 붐과 대두

대의 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는 최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성 경계가 무너질 경우 '신 골드락스'(Goldilocks·높은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이 없는 호황)의 붐과를 경험할 수도 있다.

⑧ 신용사회 진전 가능성

1987년 이래 급격히 전개된 민주화의 열

풍과 함께 신용사회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분출되면서 내년 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5.1%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하강곡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급리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상환부담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실질구매력 저하 등으로 빠른 회복세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4%대 중반의 증가율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실비투자는 올해보다 증가하며, 수출경기는 세계경제의 성장둔화로 하강세가 예상된다. 경기회복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높아지는 반면 취업자 증가가 비정규직, 일용직, 저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체감 고용경기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유화업체 가격담합 또 적발

지난 2월 1천억 과징금 이어 8개업체 혐의 확인

공정위, 내주 고발 여부 결정

지난 2월 10개 업체에 대해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던 석유화학업체 가격담합건의 후속권이 나온다.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건은 이번 건 외에도 향후 다른 제품에서도 추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단일 업계에 부과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3일 "7~8개 석유화학업체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 등 2개 제품에서도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다음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과징금과 추가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담합건은 지난 2월 발표된 고밀

도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담합건보다 기간이 길지 않아 과징금은 많지 않았지만 당시 적발됐던 상당수 업체들이 또다시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월 SK와 LG화학 등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11년간 HDPE와 PP의 제품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1천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중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에 따라 적발된 2개 제품 외에도 용제용 톨루엔·자일렌과 스티렌노모머(SM), 에틸렌글리콜(EG), 에틸렌옥사이드(EO),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 등 6개 제품에서도 담합이 이뤄진 점을 인지, 조사를 진행해왔다.

/연합뉴스

수입차 업체·현대·기아차 조사

공정위, 가격담합 여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차와 수입차 업체들의 고가 가격정책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사대상을 담합이나 부당행위 여부 등으로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13일 자동차업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월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및 벤츠, BMW, 렉서스, 아우디 등 4개 수입차 업체와 현대·기아차를 방문해 각종 자료를 압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판매 가격과 관련된 각종 장부와 서류는 물론 직원들의 이메일까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수입차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인상해왔다는 신고와 올해 초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차가 수출 가격과 달리 내수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신고가 각각 접수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왔다.

/연합뉴스

무이자 대부업체 무더기 제재

러시앤 캐시등 35곳 허위·과장 광고

특별 행사기간에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거나 대출금리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각종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러시앤캐시 등 35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이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종 러시앤캐시 등 3개사는 실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기간이 대부분 5~15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30일, 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 표기해 소비자가 무이자 대출기간을 오인하도록 했다.

실제 러시앤캐시와 에스캐피탈은 15일간 무이자 대출을 받은 고객 비율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일을 적용받은 고객은 8.1%에 불과했다.

이어 리드코프 등 6개 업체는 자체적인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춘 고객에만 대출을 해주면서도 일정한 나이만 되면 누구에게나 대출해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위드캐피탈은 일정 기간 신규고객에게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연합뉴스



희망 실은 신세계 '산타 원정대' 광주시민세계 사랑의 봉사단과 한국복지재단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희망산타원정대' 대원들이 13일 광주시민세계백화점 후원에서 출정식을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민세계는 산타원정대를 통해 한국복지재단이 선정한 30여세대에 컴퓨터와 세탁기를 주거나 도배 및 화장실 개조를 해주는 등 희망 산타 캠페인을 벌인다. /위정기기자 jrwi@kwangju.co.kr

자동차 사고뎀 즉시 보험사 알려라

금감원, 보험사기 늘자 예방법 제시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1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사고 위장이 쉽고 보험 처리가 간편해 흔히 발생한다"며 "보험사고 방지요령을 숙지해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기 방지요령.

◇사고 발생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함으로써 사고 현장에서 상호 양해 하에 해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보험사가 수법에 대비할 수 있다. 또 보험회사를 통

하면 직접 처리할 때 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보험사기 경력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도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료 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고 현장 사진촬영 해둬야 =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고현장에서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이 촬영되면 보험사기 입증이 쉬우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두는 것이 좋다.

◇사고 목격자·상대차량 탑승자 확인

해야 = 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교체하고 사고 차량의 탑승자를 돌려 보상을 늘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목격자와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합의 때 서류로 남겨야 = 사고현장에서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증빙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금액·장소·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 자필서명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상대 주장 쉽게 인정하지 말아야 = 사기꾼들은 사고에 대한 과실이 100% 운전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도록 유도한다. 면허증·자동차등록증을 요구하거나 과실을 인정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강요하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

올 상장사 534곳 5만3,647명 채용

취업·인사포탈 인크루트는 상장기업 565곳의 올해 채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 중 94.5%인 534개 기업에서 모두 5만3천647명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들 기업이 작년에 채용한 5만4천461명에 비해 1.5% 줄어든 수치다. 업종별 채용 인원은 전기·전자(1만721명), 금융(7천61명), 기계·철강·조선·중공업(4천751명), 건설(4천607명), 정보통신(4천460명), 기타제조(3천770명), 자동차(3천670명), 제약(3천341명), 석유화학(3천328명), 식음료(2천574명), 유통·무역(2천70명) 등의 순이었다.

작년보다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금융업종으로 39.8%나 증가했고 기계·철강·조선·중공업도 10.9% 늘었다.

/연합뉴스

직장인이 싫어하는 회의 스타일

1위 내맘대로 2위 고집대로

직장인들은 업무회의때 상대방 얘기를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이를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1천259명에게 '회의할 때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상대'를 설문한 결과 상대 의견을 주의깊게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 '자기 맘대로' 유형을 꼽은 응답자가 27.6%로 가장 많았다.

"결국에는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자기 고집형을 선택한 응답자가 22.5%로 2위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개진할 때 말 허리를 자리는 '말 놀기형'(14.0%), 회의의 요점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는 '요점 이탈형'(13.4%)이 뒤를 이었다. 자신의 의견과 조금만 달라도 과도하게 반박하는 '발끈형'(12.1%), 아무 말없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과묵형'(4.5%), 상사의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는 '무조건 찬성형'(4.2%) 등도 기피 유형으로 꼽혔다.

/연합뉴스

5만원-빨강 10만원-은색?

고액권 지폐 색상 눈에 띄게

2009년 상반기에 발행 예정인 고액권의 색상은 기존 지폐들과 같은 색깔의 조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별성이 강한 색조가 채택된다.

13일 한국은행은 고액권의 초상 인물과 보조소재가 사실상 결정됨에 따라 지폐의 최종 디자인과 색상을 연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초 발행된 1천원,1만원짜 지폐의 색상이 같은 청색계열로 쉽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고액권은 기존지폐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색상을 적용, 야간에도 쉽게 분간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1만원권과 1천원권은 색을 계통적으로 동일하게 배열한 10색상환표를 기준으로 할 때 3단계 정도 떨어져 있으나 같은 청색계열이어서 야간에 구별이 쉽지 않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5만원권은 따뜻한 색조, 10만원권은 차가운 색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범위내에서 가장 눈에 잘 띄고 기존 지폐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5만원권은 노랑 또는 빨강 계열, 10만원권은 회색 또는 은색 계열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관장 '홍삼정' 매출 1,000억 돌파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정관장 '홍삼정'이 지난 11일로 1천억원대의 매출고를 기록했다.

한국인삼공사의 올해 매출은 5천 20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홍삼정'이 전체 매출의 20%에 달해 단일품목으로는 최고의 효자 상품. '홍삼정'은 6년근 홍삼 100%만을 사용, 다른 첨가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진한 갈색의 농축액으로 시장에서 흔히 홍삼 엑기스라 불리는 제품이 다.

홍삼정은 홍삼의 유효성분을 물로 추출한 진한 갈색의 고농축 홍삼액으로, 식약청이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다. 홍삼정(240g) 한 병의 소비자는 18만5천원으로 현재까지 총 60만1천400명이 팔려 국민 100명당 1.3명이 홍삼정을 복용한 셈이다.



'홍삼정'의 제조기원은 9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총독부 시절, 개성에 설치된 홍삼공장에서 1912년 처음 생산된 당시에는 대형 가마솥에 홍삼을 넣고 달여 추출한 진액을 농축시켜 만들었다. 이때부터 지켜온 제품의 품질이 지금까지 이어져 95년 동안 이어지는 최장수 건강식품이다. /이종대기자 jilee@kwangju.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이기행기 스튜디오	[아름다운사진 전대점] 분야별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5	062-262-2302
영풍문고	영풍문고 광주점 매장판매 및 매장관리 사원(문구)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6	062-364-0210
호텔무도파크	대중업무, 급여관리, 4대보험, 총무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12/17	02-425-3211
금호월드	시설과장/설비, 전기, 소방등 관련업무	초대졸/경력1년	2200~2400	12/18	062-350-8022
동양생명보험	2008년 재산관리사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8	062-226-4904
GS25 한가온점	사업장별 인원충원(스크린골프장/GS25편의점/사무나)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19	062-432-9042
㈜콜롬버스 모터스	영업사원 및 영업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62-385-0407
신진정밀	설계(CAD)-유압밸브 부품 설계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20	062-954-0951
S&P환경기술	[경리/연구개발직] 정규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0	011-624-0648
공영산업	프레스 금형 경력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12/22	032-811-9730
㈜시온테크닉스	기획, 총무, 행정보조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2/22	062-944-3400
㈜유니셀	품질관리(사원 및 주임)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22	062-945-2644
㈜은반	경력 1년 이상의 프로그래머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12/22	062-524-6277
㈜성진캐피탈	2007년 무역관리 신입 및 경력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22	062-943-8115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